

Xylene, 바닥권 벗어나 피크기 진입!

생산능력 합리화 성공 마진 서서히 회복 ... 2005년 최정점 도달 전망

세계 Xylene 시장은 2002년 바닥세에서 벗어나 2004-06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CMAI(Chemical Market Associates Inc.)는 Xylene 시장이 2003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이후 2004-06년 피크기로 진입하게 되며 2005년이 최정점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Xylene 제품 마진은 1999-2002년 바닥을 쳤으나 200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동안 Xylene 생산기업들은 저마진으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생산능력 합리화를 추진했으며 다행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생산능력 합리화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TPA(Terephthalate) 마진은 2000년 바닥을 친 이후 2003년 아시아 지역의 생산능력 과잉으로 마진회복이 제한되고 조기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TPA 수요는 Polyester 수요강세에 힘이어 2002-07년 연평균 신장률 8%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Close-Coupled TPA 플랜트가 신설되고 있는데, 이는 물류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P-X(Para-Xylene) 플랜트를 TPA 플랜트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Xylene 및 TPA 마진은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다운스트림인 Polyester 제품 마진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동반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세계 최대 M-X(Mixed-Xylen) 공급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Chemical Journal 2004/01/28>